

의정갈등 장기화에 지역 의과 대학들 '난감'

교육여건 수요조사 제출 마감 엿새만에 6년 계획 정리 난망 이달까지 2025 모집요강 완성 학사일정·수업도 수 차례 연기 “의정갈등 원만한 합의 고대할뿐”

지난 2월부터 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학사일정을 앞둔 지역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 학생에 이어 교수들의 반발까지 일면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일정 등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8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이날까지 내년에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 32곳에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각 대학들은 교육여건 현황과 2025-2030학년도까지 종합계획을 제출했다.

다만 아직 의대 증원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6년간 대학 교육환경 및 재정계획을 13일 내에 제출해야 해서 대학측 입장이 난처해지고 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전남대·조선대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날 교육환경 개선 건 개선 수요조사서를 제출했다.

두 학교는 지난달 20일 각각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 규모에 맞춰 재정 및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125명에서 200명으로 정원이 늘어난 전남대는 학습공간 증축, 의과대학 교원 학보, 수련병원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25명이 늘어나 150명 정원을 보유하게 된 조선대도 지역인재 비율, 전임교원과 실습 기자재 확보 등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했다.

조선대학교는 현재 61.4%인 지역인재 전형률 70%까지 확대하고 160명인 전임교원을 240명까지 늘리는 등 증원에 따른 시설·인력 확충에 재정을 투입한다. 반면 전남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학칙을 변경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작성해야 하지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양상에 전전긍긍해하고 있다.

각 대학들은 학칙을 변경한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모집요강을 만들어 발표한다.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중순께 모집요강을 발표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까지는 학칙을 개정해 대교협에 제출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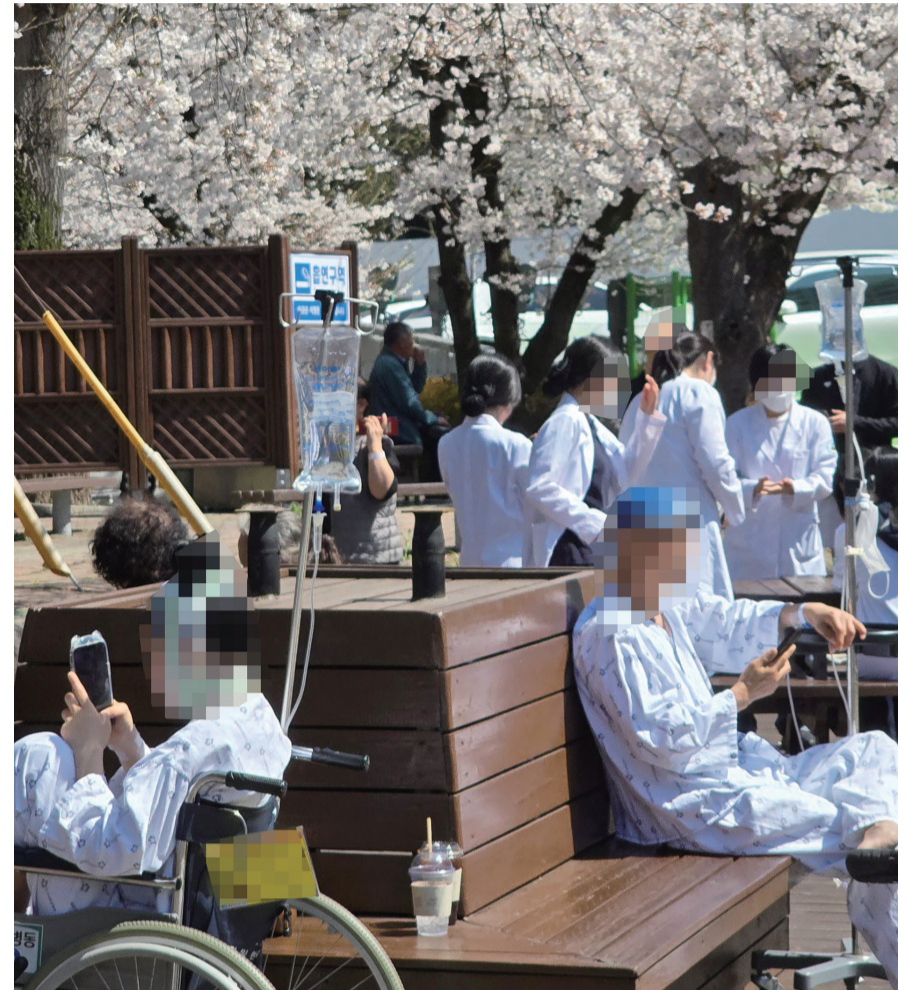
한다. 앞서 의대 증원이 확정됐으나 의사단체와 타협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입시 계획 발표가 예년에 비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남대 관계자는 “통상 학칙을 변경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달 중 끝내야 적어도 다음달 초 모집요강을 발표할 수 있는데 현재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사단체와 협상이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어 평소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혹여 증원 규모가 바뀌더라도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일부 대학교가 수업을 개시하기도 했지만 아직 학생들의 동맹휴학이나 교수들의 집단사직 때문에 광주 지역 대학은 쉽사리 일정을 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대·조선대는 오는 15일로 학사일정을 연기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5번을 미뤘다. 수업을 개시하면 학생들의 휴학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부더가 난감”이라며 “학사일정을 미루면서 하루빨리 정부와 의사단체가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의정갈등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학사일정을 앞둔 지역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조선대병원 앞 숲터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교육청, 수능문항 분석·수업 적용방안 자료집 보급

수능·학평 참여교사가 개발

광주시교육청이 8일 ‘수능 문항 분석 및 수업 적용방안 자료집’을 전체 일반고등학교에 보급했다.

이 자료집은 수능과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검토 참여 교사들로 구성된 시교육청의 ‘수능 대비 교사지원단’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자료로 수능 시험 대비 교수·학습 과정과 수업 적용 방안을 제시해 학생들의 수능시험 대비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했다.

지난 2024 수능은 킬러문항이 배제됐으나 높은 변별도를 갖춘 첫 시험이었고 기존 수능시험과 다른 경향성이 있기에

이를 분석한 자료집을 개발하고자 했다.

수능 시험 영역인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생활과윤리·한국지리·사회·문화), 과학탐구(물리학 I·화학 I·생명과학 I·지구과학 I)의 2024학년도 수능 기출문제를 분석해 수업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료집의 순서는 영역별로 수능 문항을 제시하고, 문항을 분석한 후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기타 수업 활용 팁을 안내하고 있다.

‘수능 대비 교사지원단’은 수능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검토 등에 실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교육 내에서 효과적으로 수능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수업

활용 자료를 제작했다.

더불어 전국단위 모의고사가 없는 8월과 수능시험 한 달 전인 10월에 광주 자체 수능 모의평가 ‘광주 최종 완성’을 개발해 학교로 보급할 계획이다. 국어, 수학, 영어 교사 각 15명, 탐구영역은 과목별로 각 4명, 총 77명의 교사가 지원단에 참여하고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고3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능 문항을 분석해 적용할 수 있는 자료집을 보급했다”며 “진학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식당 테이블 위 지갑 훔친 40대 딸미

“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식당에서 지갑을 훔친 남성이 경찰에 딸미를 잡혔다.

8일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달 23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식당에서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 A(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종업원이 영입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탐문수사 끝에 지난 5일 북구 유동의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범죄 등 실형 전과가 6건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윤준명 수습기자

全南日報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와 함께 하세요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